

## 말씀 많으신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개역, 창세기 3:9~21]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누구를 많이 생각하셨나요? 아담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아담이 어떤 사람이죠? 선악과 따먹고 우리 신세를 다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 아담입니까? 그런 아담 많이 보셨어요? 집에서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당신 때문 아담입니까?' 하면 당신이 바로 아담이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지금은 시큰둥합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죠. 처음에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고 노래하더니 선악과 따먹게 했다고 하와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라고 마음이 짝 돌아서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아담이 얼마나 많은가? 하와는 오늘 뺏시다. 위낙 육을 많이 얻어 먹었을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담을 기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생을 이런 고생길로 들어가게 한 아담과 하와이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잘못된 아담이 아닙니다. 그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집안 식구들끼리도 '저 아담 같은 인간'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꼭 한 마디를 덧붙이십시오. '저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는지?' 아담 같은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담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아담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담도 많고 하와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볼 때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를 기억하면 더욱 좋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지요?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살아난 사람.

그것도 기억할만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눈빛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만 보이거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겁이 나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아담, 하와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시되 범죄한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범죄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빈손으로 그냥 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서 그 피를 들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부르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곳곳에

서 반복합니다. 특별히 많은 곳이 에스겔서인데 그런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답이 맞는지 횡수를 물어본 분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기쁩니다. 일주일만에 다 읽으려면 힘들어요.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내용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반복해서 하시는 그 말씀만 찾아가면서 읽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답해 주신 분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발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렇게 목놓아 외칩니까? 어떤 하나님이죠? 답이 너무나 많을 수 있으니 아무렇게 말해도 다 맞을 겁니다. 문제는 어떤 대답을 하실 거냐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답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한 수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까운 친구 중에 바둑을 잘 두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냐더니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갈까?' 하더군요. 아주 으리으리한 고기 집에 자기는 공짜래요. 가서 바둑 한판 두어주면 됩니다. 그 사장님이 왜 그러실까요? 이 사람한테 한 수 배워보겠다는 거지요. 바둑 두는 사람이 한 수 배우겠다고 얼마나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라도 우리 노력으로 배운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범죄하고 영영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외람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말씀이 많으신 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면 따먹는 순간에 독약을 마시듯이 죽어버려야 그게 하나님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음에도 그들이 죽지 않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봅시다. 찾아와서 물었더니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실을 먹었느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고 묻는 것 같습니까? 알고 묻는 것 같습니까? 알고 묻는 겁니다.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도 안되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것 참, 차라리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는 뜻으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답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왜 그랬느냐고 자꾸 묻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제가 학교 있을 때에 옆 반에 정말로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분은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섭다고 소문이 났는지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중학교 배정을 위해서 뽕뽕이를 돌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 아빠보고 '아빠 살았어요. 상도중학교 안 걸렸어요' 하더라고요. 상도중학교에 무서운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초등학교까지 알려져서 상도중학교 배정만 안돼도 살았다 할 정도로 소문난 선생님입니다.

애들이 뭘 잘못하면 흔히 하는 말로 한 방에 끝납니다. 이 선생님은 절대 질문이 없습니다. 왜 늦었느냐? 언제까지 가져올 것이냐? 이런 질문이 없어요. 잘못해서 걸리면 질문 없이 그대로 한 방에 끝납니다. 그 반은 일년 열 두달 지각도 없고 조퇴도 없고 결석도 없고 사고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연말에 저 보고 "선생님, 제가 좀 방법을 바꿔야겠습니다." "왜요?" "생활기록부에 쓸 말이 없어요." 생활기록부에 애들의 행동이나 특징을 써 주어야 되는데 쓸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다 똑같으니까요. 이 분의 특징이 말이 없어요. 잘못하면 한 방에 끝납니다. 그 반은 말쟁이나 사고라고는 일체 없습니다.

바로 옆반이 저희 반인데 지각 한 애를 예로 들면, "왜 늦었냐?" "내려오는데 차가 가 버리잖아요." "다음에는 조금 일찍 내려와라." 그 다음날 또 지각합니다. "오늘은 왜 늦었냐?" "엄마가 아침을 안 해 줘서

요.” 엄마가 아침을 몇 시에 해 주더냐고 물어보면 시간에 맞게 해 줬어요. 나중에 따져보면 자기가 늦게 일어났어요. “네가 늦게 일어났네.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 늦은 거예요. “야, 저녁에 일찍 자라, 늦게 잔 게 원인이다. 일찍 자라.” “예” 그 다음날 또 지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왜?” “제가 탄 차가 빵구 났어요.” “세상 천지에 학교 오다 버스가 빵구나서 지각한 놈은 니밖에 못 보았다. 어째서 니가 탄 차만 빵구 나고 사고 나고 왜 그러냐?”

일년 열두달 이 모양입니다. 한 쪽 반에는 담임이 없어도 조용합니다. 우리 반은 담임이 있어도 조용한 게 5분을 못 넘깁니다. 시끄러워서 옆 반 선생님들이 야단을 칠려고 문을 열어보면 선생님이 그 앞에 떡 앉아 있거든요. 그럼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가요. 제가 애들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너희들 나한테 고맙다고 해라. 내라도 여기 앉아 있으니 너희들 그렇게 시끌벅적해도 야단 안 맞지 내 없을 때에는 제발 조용해라. 오늘 내 없었으면 틀림없이 단체 기합 받았을 거다. 조용해라.” 그러면 조용해요.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잠깐 있다보면 또 속닥속닥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얘기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놔둡니다. 스스로 공부할 능력이 잘 없으니까 모르거든 물어가면서 공부해라면서 놔두거든요. 그러면 몰라서 묻는 아이들은 몇 안되고 영똥한 녀석들이 더 설치는 겁니다.

왜 그냥 놔 두냐고요? 저는 나름대로 아이들을 너무 놀러가면서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인격에 손상이 갈까 싶어서 가출한 아이를 붙들고도 늘 묻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재미있는 것이 영해(영덕군 영해면) 있을 때 아이 하나가 가출했다가 사흘만에 왔는데 물었죠.

“왜 갔니?”

“고추따기 싫어서요.”

“고추따는 것 힘들긴 힘든다더라. 그럼 어디 갔었니?”

“대구요.”

“대구 어디 갔었니?”

“뒀, 시내 여기저기요.”

“땡다. 그럼 왜 왔니?”

“다리 아파서요.”

그게 이해가 퍼뜩 안 가는 거예요. 대구 갔는데 다리가 왜 아플까? 몇 마디 더 물어 보니까 이해가 가요. 시골 애가 가방 들고 시내를 다니는데 화장실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해 가죠? 시골 아이들에게는 화장실이 곳곳에 널렸는데 대구 시내를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을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줌은 마렵지요, 가방은 놓을 데가 없지요, 앉을 데는 없지요,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내가 있을 곳이 못된다 싶어 그 길로 차를 타고 내려와서 그 이튿날 학교는 안 들어오고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하루종일 누워서 “야,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내가 어디를 갔더라 말이나?” 그 이튿날 학교 들어왔어요. 제가 더 이상 야단 안 쳤습니다. “나가보니까 알겠지? 그래도 고추따면서 학교 다니는 게 나으니까 학교 잘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거죠. 반 애들에게는 “가출해서 대구 갈 사람은 ○○에게 물어보고 가거라.” 이러면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형편 따져 가면서, 상황 봐줘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게 웬만한 인내심 없이는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옆반 담임보면 정말 편해요. 그 분은 학교 오지 않아도 교실이 조용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정말로 제대로 심판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옆반 선생님의 방식대로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군말하지 말고 단칼에 끝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찾아와서 이것 저것 물으면서 얘기가 그렇게 길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냥 끝내고 싶지않다는 뜻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묻어있고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어떻게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벌을 주면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선생님은 벌줄 때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보아야 "엎드려!" 이 한 마디로 끝냅니다. 그런데 잘못된 아이들을 앉혀놓고 "네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매를 몇 대를 맞고..." 이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애들이 겁을 안내요. 아무 말없이 "엎드려!" 하는 선생님께는 꿈쩍없이 딱 엎드려 두들겨 맞습니다. "네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지 않냐?" 하면서 말이 많으면 한 대 맞고 나면 죽는다고 온갖 엄살을 다 뺏니다. 적당하게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요.

벌을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분노의 눈빛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와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담보다는 좀 낫지요? 아마 아담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믿는다고 하겠습니까라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하고 아담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좀 낫지요? 아담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실 말씀이 많다. 나와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많으셔도 뱀에게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먹었느냐 묻던 그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묻지 않으셨습니다. 뱀에게는 왜 이랬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바로 선고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많으시다 해도 아무에게나 말이 많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말씀이 많으신 하나님일지라도 이 뱀에게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대로 선고가 떨어져 버립니다. 15절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해 놨단 말이지? 좋다. 그렇다고 나도 너에게 직접 손대지 않겠다. 네가 유혹했던 그 여자의 후손에게 한 번 당해봐라. 그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도 발악을 하기는 하겠지만 겨우 발꿈치 정도밖에 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 섞인 선고입니다.

이 사탄이 뱀입니다. 뱀에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 앞으로 내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이 온단 말이지? 눈독을 단단히 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길을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과 아비멜렉에 갔을 때 누이라고 했다고 가서 나중에 들통난 사건이 있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나 바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그 바로와 아비멜렉이 하는 일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여자의 후손의 길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결코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후손들 중에 어떤 경우는 그 자손들이 한꺼번에 몇십명이 전부 몰살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단 한명이라도 반드시 살려 놓으셨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는 그 노력이 사탄의 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을 통해서 모든 유아를 학살하려는 것도 역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마 이 3장 15절의 말씀을 사탄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3장 15절이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 바로 여기 언급한 여자의 후손이란 이 땅에 와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예수 그리스도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아담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뜻을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뱀에게 한 얘기를 그냥 옆에서 엿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하와가 가인을 낳았는데 아담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낳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아놓고 왜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말하느냐 말입니까? 아마 아담의 머리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태어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아마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뜻의 깊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의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약속을 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하지 않을까요? 간접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몹시 화가 났을 경우에 이 자식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안 하는 경우가 있지요. 어디에 다 대고 해요? 만만한 집사람이나 아니면 동생에게 대고 고향을 질러 대지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그 고향소리의 목표가 쫓겨 나가는 아들을 향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심정은 그런 아들을 한 번 겪어 보아야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복은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착잡합니다. 형벌은 내려야겠고 희망은 주어야 하겠고, 야단은 쳐야 하는데 너무 기죽지 말았으면 하는 두 가지 감정이 이 말 속에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짐승은 새끼를 낳을 때에 어느 정도 고통은 있지만 사람과 비교할 바는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은, 글썽요, 저도 어차피 남의 얘기를 듣거나 간혹 한 번 정도 본 적은 있네요. 머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마음놓고 욕을 해도 되는 때가 그때 밖에 없지요? 세상에, 참 가관이네요. 머느리가 시어머니 붙들고 욕을 마구 퍼부어 대는데도 시어머니가 ‘야야, 조금만 참아라’ 이러면서 달래기만 하더라구요. 아프긴 많이 아픈가보다 싶은 생각이 옆에서 들긴 들네요. 아니 얼마나 아프면 그 때 욕하는 것은 전혀 흥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을까요? 내가 잘못했으니 맛좀 보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별로 인하여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런 것인가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고통입니다.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재탄생 시킬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겪는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여자는 체험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 하면 애 낳은 여자는 다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해산의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다 애 낳고 고통스러웠으니까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면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고통을 견디며 낳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 수가 있는가?’ 비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형제를 향하여서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자식도 그 말을 잘 활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 딸을 몹시 차별하는 아버지에게 별로 효과가 없지만 엄마에게 효과가 있어요. 딸이라고 구박을 많이 하는 엄마에게 딱 한마디를 하면 됩니다. ‘엄마는 아들 낳을 때만 배 아프고 딸 낳을 때는 배 안 아팠나?’ 이것은 굉장히 효과있는 말입니다. 엄마가 딸이라고 괘씸하게든 시험삼아 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 낳은 아픔을 기억하는한 이 말은 대단한 위력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야기를 오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식 죽이는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아 안 것은 내가 자식을 죽이느라고 당하는 이 고통,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기를 낳은 분들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별입니까? 복입니까? 여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별이 하나 있는데 16절 뒷편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이 여전히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이 별입니까? 복입니까? 남편을 사모한다? 그리움에 사무쳐 있는 건우 직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우와 직녀는 서로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떨어져 있으니까요. 떨어져 있지 않으면 사모함이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전에 없던 커다란 간격이 생겨났다는 뜻

입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보고 남편들은 집에 가서 뱀라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글썽요 그것 큰일날 것입니다. 그걸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게 되리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상하관계로 규정한 적이 없어요. 서로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안되고 갈라져서 둘이 되더니 서로가 위로 올라서서 누르려고 하더라 말입니다. 내가 남편이고 당신은 아내니까 당신이 순종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절대로 불로소득을 노리지 마십시오. 복권 사가지고 굶고 있거나 복권 한 장 사가지고 당첨되면 '하나님 교회 짓는데 보태겠습니다'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복권 당첨 되기 바라고 굶는 것이나 당첨되어 가지고 들고 온 현금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땀 흘려가면서 마땅히 내가 써야 할 것 애써가면서 저축하고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돈은 벌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버셔야 합니다. 그 말은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아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한 디 더 붙여서 최대한 주라는 겁니다. 벌 수 있는 한 벌고 아낄 수 있는 한 아껴서 최대한으로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범죄하고 난 후에 분리되어 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두려움이었죠?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로 있을 땐 두렵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간격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변화는 부끄러움을 몰랐었는데 부끄러움을 알게 되지요.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벌어졌음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거리가 좀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부끄러움이 생깁니까 분리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을 사모하고 아내를 다스리는 것도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분리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땅이 소산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담과 땅이 분리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분리되어 나가는 모습을 3장이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 첫째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관계를 전부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마지막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이때까지 에덴동산에는 죽음이란 없었습니다. 짐승도 죽음을 몰랐고 사람도 죽음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 한 벌을 해 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이 가죽옷 한 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를 위해 희생당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은연 중에 비추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쪽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생각이 들면 제일 나쁜 것은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느냐? 그만 때려치우자!'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 부부싸움 않도록 당부합니다. 사탄이 부부 싸움을 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토요일 저녁이죠. 토요일 저녁에 대판 싸우고 나면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맛이 남니까? 토요일 오후에 싸움이 되겠다 싶거든 아, 이게 사탄의 장난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자신

감을 잃어버릴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은근하게 훗날을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깔려 있다고 하여도 그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아픈 심정을 숨겨 놓은 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실수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 본인 자신도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정작 누가 더 괴롭죠? 부모도 괴로운 것 아세요? 경주 검찰에 아이들 인수하러 학부형 데리고 종종 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내남교도소에 임시로 가 있다가 검사가 불려서 올 때 보면 중학생을 빗줄로 꿰뚫어 묶어서 데리고 옵니다. 저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부모가 몹시 아파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야 할 때 살지 못하면 나도 답답하지만 정말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 속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이 고통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보다 내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고 힘들어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죠? 밥 먹고 학교 가라는데 밥 안 먹고 도망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밥 안 먹고 학교 간다. 누가 답답한가 보자' 하고 도망가면 누가 답답한대요? 실제로는 자기가 답답하죠. 그런데 밥 못 먹고 보내는 엄마가 왜 그리 답답해요?

가끔 한강 철교에 그런 일 생기데요. "내 여기서 뛰어 내릴 거다. 누가 오기만 해봐라 뛰어내린다."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요. 밑에서 마이크 대고 "야, 제발 참아라. 잠깐만 기다려봐라." 사정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그런 광경을 못 보셨어요? 이상하다? 요새 그런 일이 잘 없나요? 마이크에 대고 고함치는 사람은 주로 경찰서장입니다. 올라오기만 해 봐라 나 뛰어내린다 고함치르는 놈이 답답한 놈이예요? 마이크에 대고 제발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는 사람이 답답한가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그런 1차 아파트 전도 나갑니다.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문 안 열어주고 누구요? 하고 고함치르는 사람이 답답한가요? 누가 답답한 사람이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답답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왜 답답해요?

세상에 뒤집어 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만 싫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억지로 억지로 전도시켜 가지고 예수 믿게 해 놓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팔세한 것 정말 미안합니다 하면서 평생토록 감사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전도하는 사람이 답답한 법입니다. 우리보다 더 답답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온 교리가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웃고 있을 때 사탄이 가소롭게 여깁니다.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러면서도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되지 하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탄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교리가 이신칭의일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빠졌으니까 이 놈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부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하고 일어나니까 사탄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빙긋이 웃습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뜨리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힘들고 고통스런 가운데 있더라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성도들끼리라도 정말 밍거든 욕을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나 욕하기 전에 저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까라고 꼭 한 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욕을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성절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을 한 번은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누구를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2001.11.04] 말씀 많으신 하나님 (창세기 3:9-21)

분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고 그 인물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